

일개 대학 간호학생들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조미경¹ · 신이나² · 이예진² · 이지효² · 장은혜² · 정혜린² · 차경민²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¹,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학부생²

University Nurs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y

Cho, Mi Kyoung¹ · Shin, I Na² · Lee, Yea Jin² · Lee, Ji Hyo² · Jang, Eun Hye² · Jeong, Hye Rin² · Cha, Kyung Min²

¹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eongnam

²Under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eongnam,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y in university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correlational study involved 139 second- and third-year nursing students. They completed a 3-part questionnaire comprising items assessing general characteristics (9), empathic ability (30), and cultural competency (27). **Results:** The mean scores for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y were 106.0 and 78.7, respectively. Empathy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y general characteristics. However, cultural competency significantly differed by foreign language skill. Additionally,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nurs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y. **Conclusion:** Nurs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y need to be enhanced to ensure the provision of high-quality nursing services to foreign patients.

Key Words: Nurs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Cultural competenc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에 많은 수의 외국인 환자가 유입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 48,580,000명에 비교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61,415명으로 약 100명 중 2.6명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4년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797,618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9.8% 증가하였다.¹⁾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외국인 방문 기록을 보면 취업(94,603명), 단기방문(87,048명), 유학(27,298명)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중 비정규직 취업자들의 수는 66,580명이며,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68.2%를 차지한다.¹⁾ 따라서 한국

으로 유입되는 비정규직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을 돕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²⁾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한국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 수의 증가를 시사한다. 실제로 2013년 외국인 실 환자 수는 211,218명으로 2010년 81,789명이었던 것에 비해 61.3% 증가한 것을 보였다.³⁾ 이에 외국인의 전반적인 한국사회 적응과 건강상태,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및 외국인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몇 년간 보건복지부의 다문화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내국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호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간호계를 이끌어 갈 간호대학생은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외국인 환자들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

주요어: 간호대학생, 공감, 문화적 역량

Corresponding author: Cho, Mi Kyung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53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13136, Korea.
Tel: +82-31-740-7415, Fax: +82-31-740-7415, E-mail: ciangkcho@eulji.ac.kr

투고일 2015년 7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30일

된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간호를 제공하는 글로벌한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한다.⁴⁾ 또한 간호대학생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 및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험 및 경험적 학습이 중요하며, 이러한 체험을 문화적 역량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⁵⁾ Oh⁶⁾의 연구에서, 문화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과 자기효능감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하나인 공감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인 Yang, Lim과 Lee⁷⁾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만을 파악하는 데 그쳤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간의 관계와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대상자들에게 문화 간 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사이의 상관관계와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상자 수는 G*Power Ver. 3.1.2를 통하여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8개요인, 양측 검정으로 계산한 결과 표본 수는 136명이었다. 설문조사를 위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간호대학생 2, 3학년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감능력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을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을 공감능력이라 한다.⁸⁾ 공감능력 측정도구는 Davis⁸⁾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⁹⁾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로 Park¹⁰⁾이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요인(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 진술 24문항, 부정적 진술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30~150점이다. Park¹⁰⁾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8이었다.

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상세한 인식, 구체적 지식, 정교화 된 기술, 문화적 속성-유사점과 차이점 모두에 관한 개인적, 직업적 준중을 기초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 및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¹¹⁾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는 Han¹²⁾이 Suh¹¹⁾의 개념분석을 통한 문화적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한국적 다문화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표준화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7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긍정적 진술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의 총점 범위는 27

점~135점이며, 하위 요인별로는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 경험은 각각 4~20점, 문화적 기술은 6~30점, 문화적 지식은 9~45점이다. Han¹²⁾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4였다.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개대학교 성남캠퍼스 간호학과 학생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중간 쉬는 시간에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동의서 및 설문지 작성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배부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작성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배부된 총 152부의 설문지 중 139부(91.45%)가 수거되었고, 총 13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 외국방문경험, 외국어 실력,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9명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126명(90.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음'이 74명(53.2%), '없음'이 65명(46.8%)이었다. 종교에서는 '없음'이 82명(59.0%), '있음'이 57명(41.0%)이었다.

외국방문 경험은 '없음'이 52명(37.4%), '있음'이 76명(54.7%)이었으며, 대상자 외국어 실력의 평균은 4.6 ± 2.0 점으로, '5점 이상'이 85명(61.2%), '5점 미만'이 54명(38.8%)으로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어 실력이 5점 이상이었다.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은 '없음'이 62명(44.6%), '있음'이 77명(55.4%)으로 외국인과의 교류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은 '없음'이 108명(77.7%), '있음'이 31명(22.3%)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월등히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Gender | Male | 13 (9.4) |
| | Female | 126 (90.6) |
| Clinical practicum | No | 65 (46.8) |
| | Yes | 74 (53.2) |
| Religion | No | 82 (59.0) |
| | Yes | 57 (41.0) |
| Visiting foreign country* | No | 52 (37.4) |
| | Yes | 76 (54.7) |
| Foreign language competence | < 5 | 54 (38.8) |
| | ≥ 5 | 85 (61.2) |
|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 No | 62 (44.6) |
| | Yes | 77 (55.4) |
|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 No | 108 (77.7) |
| | Yes | 31 (22.3) |

*Missing.

2. 대상자의 공감능력 및 문화적 역량 정도

대상자의 공감능력의 평균은 150점 만점에 106.0 ± 10.1 점이며,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요소의 평균은 51.9 ± 5.1 점, 정서적 요소의 평균은 54.0 ± 6.5 점이었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의 평균은 135점 만점에 78.7 ± 12.3 점이며,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인 문화적 인식의 평균은 16.4 ± 2.0 점, 문화적 민감성의 평균은 10.8 ± 3.0 점, 문화적 기술의 평균은 15.2 ± 3.1 점, 문화적 경험의 평균은 13.4 ± 2.5 점, 문화적 지식의 평균은 22.9 ± 5.8 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총점과 하위 영역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정도

대상자의 종교 유무에 따라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 요소인 문화적 경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453$, $p=.015$). 대상자의 외국어 능력이 '5점 이상'인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점수가

'5점 미만'인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074$, $p=.040$). 대상자의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 요소인 문화적 경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099$, $p=.038$)(Table 4).

5.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39$, $p=.005$). 공감능력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인 문화적 인식($r=.459$, $p<.001$), 문화적 민감성($r=.189$, $p=.026$), 문화적 경험($r=.36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문화적 기술($r=.109$, $p=.203$)과 문화적 지식($r=.039$, $p=.645$)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적 역량은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요소($r=.245$, $p=.004$), 정서적 요소($r=.180$, $p=.034$)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5).

6.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e (N=139)

| Variables | M±SD | Range |
|-----------------------------|------------|--------|
| Empathy (total) | 106.0±10.1 | 78~129 |
| Cognitive-empathic ability | 51.9±5.1 | 36~64 |
| Emotional-empathic ability | 54.0±6.5 | 37~69 |
| Cultural competence (total) | 78.7±12.3 | 46~117 |
| Cultural awareness | 16.4±2.0 | 11~20 |
| Cultural sensitivity | 10.8±3.0 | 4~20 |
| Cultural skill | 15.2±3.1 | 8~25 |
| Cultural experience | 13.4±2.5 | 7~20 |
| Cultural knowledge | 22.9±5.8 | 10~42 |

Table 3. Empath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Empathy (total) | | Cognitive-empathic ability | | Emotional-empathic ability | |
|---|------------|-----------------|--------|----------------------------|--------|----------------------------|--------|
| | | M±SD | t (p) | M±SD | t (p) | M±SD | t (p) |
| Gender | Male | 103.8±11.4 | -.791 | 51.6±5.4 | -.235 | 52.2±7.0 | -1.052 |
| | Female | 106.2±10.0 | (.431) | 52.0±5.1 | (.814) | 54.2±6.4 | (.295) |
| Clinical practice | No | 106.1±10.1 | -.173 | 52.1±5.5 | .389 | 53.7±6.2 | -.579 |
| | Yes | 105.8±10.2 | (.863) | 51.8±4.7 | (.698) | 54.4±6.4 | (.563) |
| Religion | No | 106.6±10.4 | .663 | 52.4±5.1 | .964 | 54.2±6.4 | .275 |
| | Yes | 105.5±10.0 | (.508) | 51.6±5.1 | (.337) | 53.9±6.6 | (.784) |
| Visiting foreign country* | No | 104.4±10.8 | -1.537 | 51.3±5.0 | -1.210 | 53.1±7.3 | -1.445 |
| | Yes | 107.2±9.7 | (.127) | 52.4±5.2 | (.229) | 54.8±5.9 | (.151) |
| Foreign language competence | < 5 | 105.2±9.5 | -.687 | 51.3±5.1 | -1.171 | 53.9±6.1 | -.149 |
| | ≥ 5 | 106.4±10.6 | (.493) | 52.3±5.1 | (.244) | 54.1±6.7 | (.882) |
|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 No | 106.3±10.3 | .373 | 52.1±4.9 | .365 | 54.2±6.7 | .294 |
| | Yes | 105.7±10.0 | (.710) | 51.8±5.4 | (.716) | 53.9±6.4 | (.769) |
|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 No | 105.6±10.1 | -.765 | 51.7±5.0 | -1.193 | 54.0±6.5 | -.254 |
| | Yes | 107.2±10.3 | (.445) | 52.9±5.0 | (.235) | 54.3±6.6 | (.800) |

*Missing.

Table 4. Cultur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9)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Cultural competence (total) | | Cultural awareness | | Cultural sensitivity | | Cultural skill | | Cultural experience | | Cultural knowledge | |
|---|------------|-----------------------------|--------|--------------------|--------|----------------------|--------|----------------|--------|---------------------|--------|--------------------|--------|
| | | M±SD | t (p) | M±SD | t (p) | M±SD | t (p) | M±SD | t (p) | M±SD | t (p) | M±SD | t (p) |
| Gender | Male | 79.5±16.7 | 0.178 | 16.1±2.6 | -0.612 | 10.8±3.7 | -0.055 | 15.8±4.1 | 0.673 | 13.5±2.9 | 0.088 | 23.4±6.6 | 0.340 |
| | Female | 78.6±11.8 | (.862) | 16.4±1.9 | (.542) | 10.8±2.9 | (.956) | 15.2±3.0 | (.502) | 13.4±2.5 | (.930) | 22.8±5.7 | (.734) |
| Clinical practice | No | 78.3±11.2 | 0.350 | 16.3±2.0 | -0.713 | 11.0±2.9 | -0.635 | 15.6±3.2 | 1.362 | 13.3±2.4 | 0.283 | 23.1±6.4 | 0.472 |
| | Yes | 79.0±13.2 | (.727) | 16.5±1.9 | (.477) | 10.7±3.1 | (.527) | 14.8±2.9 | (.175) | 13.5±2.6 | (.778) | 22.6±5.1 | (.638) |
| Religion | No | 77.0±11.9 | 1.917 | 16.4±2.1 | 0.213 | 10.6±2.8 | 0.847 | 15.7±3.3 | 1.657 | 13.0±2.5 | 2.453 | 23.8±5.5 | 1.611 |
| | Yes | 81.1±12.6 | (.057) | 16.4±1.9 | (.831) | 11.1±3.3 | (.398) | 14.9±2.8 | (.100) | 14.0±2.4 | (.015) | 22.2±5.9 | (.109) |
| Visiting foreign country* | No | 77.0±12.7 | -0.998 | 16.2±1.6 | -1.309 | 10.7±3.0 | 0.139 | 15.1±3.4 | -0.066 | 12.9±2.6 | -1.613 | 22.1±5.9 | -0.874 |
| | Yes | 79.2±11.6 | (.320) | 16.6±2.0 | (.193) | 10.8±3.0 | (.886) | 15.2±2.8 | (.947) | 13.6±2.4 | (.109) | 23.0±5.6 | (.384) |
| Foreign language skill | < 5 | 74.5±9.5 | -2.074 | 14.0±2.6 | -1.723 | 10.3±3.0 | -1.638 | 14.8±3.1 | -1.196 | 13.3±1.2 | -1.024 | 21.7±6.0 | -1.869 |
| | ≥ 5 | 77.7±11.9 | (.040) | 16.3±2.0 | (.087) | 11.1±2.9 | (.104) | 15.5±3.1 | (.234) | 12.9±2.1 | (.307) | 23.6±5.5 | (.064) |
|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 No | 77.5±12.6 | -1.074 | 16.4±1.9 | -0.219 | 10.4±3.0 | -1.343 | 15.0±2.8 | -0.712 | 13.2±2.6 | -0.883 | 22.5±6.2 | -0.751 |
| | Yes | 79.7±12.0 | (.285) | 16.4±2.0 | (.827) | 11.1±3.0 | (.181) | 15.4±3.3 | (.477) | 13.6±2.4 | (.379) | 23.2±5.4 | (.454) |
|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 No | 77.8±12.8 | -1.642 | 16.2±1.9 | -1.851 | 10.8±3.1 | -0.395 | 15.2±3.2 | -0.403 | 13.2±2.6 | -2.099 | 22.5±5.9 | -1.529 |
| | Yes | 81.9±9.9 | (.103) | 17.0±2.1 | (.066) | 11.0±2.5 | (.693) | 15.4±2.5 | (.687) | 14.2±2.1 | (.038) | 24.3±5.1 | (.129) |

*Missing.

Table 5. Correlation on Coefficients between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e

(N=139)

| Variables | Cultural competence (total) | Cultural awareness | Cultural sensitivity | Cultural skill | Cultural experience | Cultural knowledge |
|----------------------------|-----------------------------|--------------------|----------------------|----------------|---------------------|--------------------|
|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 Empathy (total) | .239 (.005) | .459 (< .001) | .189 (.026) | .109 (.203) | .361 (< .001) | .039 (.645) |
| Cognitive-empathic ability | .245 (.004) | .392 (< .001) | .164 (.054) | .132 (.122) | .356 (< .001) | .077 (.356) |
| Emotional-empathic ability | .180 (.034) | .407 (< .001) | .165 (.052) | .066 (.442) | .282 (.001) | .000 (.995) |

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보이는 외국어 능력과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공감능력의 하부 영역을 독립변수로, 문화적 역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으로 구축된 모형은 공차(tolerance)가 0.728~0.989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11~1.373으로 10 이하를 만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696$, $p=.013$).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공감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지만,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문화적 역량을 토대로 문화적 역량의 하부 영역을 독립변수로, 공감능력을 종속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으로 구축된 모형은 공차(tolerance)가 0.451~0.778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285~2.215으로 10 이하를 만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672$, $p<.001$)(Table 6).

논 의

최근 한국사회의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 인력으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문화적 소양을 갖출 때 다양한 문화권의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Empathy and Cultural Competence

| Variables | Empathy | | | Cultural competence | | |
|----------------------------|---------|-------------|--------|---------------------|-------------|--------|
| | β | t | p | β | t | p |
| (Constant) | | 9.142 | < .001 | | 3.966 | < .001 |
| Foreign language skill | | | | .111 | 1.332 | .185 |
| Cultural awareness | .363 | 4.377 | < .001 | | | |
| Cultural sensitivity | .261 | 2.507 | .013 | | | |
| Cultural skill | -.082 | -0.750 | .455 | | | |
| Cultural experience | .241 | 2.477 | .014 | | | |
| Cultural knowledge | -.195 | -1.854 | .066 | | | |
| Cognitive-empathic ability | | | | .196 | 2.021 | .045 |
| Emotional-empathic ability | | | | .072 | 0.743 | .459 |
| F* | | 10.672 | | | 3.696 | |
| p | | < .001 | | | .013 | |
| Adj R ² | | .259 | | | .055 | |
| Adj R ² change | | .286 | | | .076 | |
| Tolerance | | 0.451~0.778 | | | 0.728~0.989 | |
| VIF | | 1.285~2.215 | | | 1.011~1.373 | |
| Durbin-Watson | | 1.897 | | | 1.966 | |

*Multiple regression.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평균 105.9(Range: 78~129)점이었다. 같은 측정도구로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각각 107.4점,¹³⁾ 105점,¹⁴⁾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적용 전 실험군 102.76점, 대조군 105.11점¹⁵⁾으로 비슷하거나, 109.6점¹⁶⁾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재 전 실험군 115.5점, 대조군 111.48점으로 약간 높았다.¹⁷⁾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및 복지 전공 대학생의 공감능력 연구¹⁸⁾에서 외국인과의 교류경험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지 여부가 공감능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Kim과 Yi¹³⁾의 공감능력이 성별과 학년, 전공만족도, 실습유무,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와 Yang 등¹⁴⁾의 외국인과의 교류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Oh 등¹⁸⁾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여자대학생이 126명(90.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성별에 따른 편차를 뚜렷하게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평균 78.6(Range: 46~117)점이었고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91점이었다. 문화적 역량을 유사한 도구로 측정한 Lee, Eo와 Lee¹⁹⁾의 연구에서는 2.99점, Kim과 Kim²⁰⁾의 연구에서는 3.0점이었으며, Cha와 Yang²¹⁾의 연구에서는 2.98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Park과 Jung²²⁾의 연구에서는 3.67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점수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종교가 있는 대상자와 외국어 능력이 5점 이상으로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a와 Yang²¹⁾의 연구에서 종교,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Cha와 Yang²¹⁾의 연구에서는 종교와 외국어 능력 외에도 문화 관련 요인인 해외여행 횟수, 해외 거주경험, 외국인친구 교제경험, 교제기간, 다문화 간호문화 관련 수업경험에서도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보였던 것은 본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 Kim과

Kim²⁰⁾의 연구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과 임상실습경험이나 다문화강좌 수강 경험, 해외여행여부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차이가 없는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연령, 성별, 학년, 외국인 친구여부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보인 것과 종교유무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Lee 등¹⁹⁾의 연구에서도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학년,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수강 경험, 외국인과의 만남 빈도, 외국인 친구의 수, 해외여행 경험에 따라 문화적 역량이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Park과 Jung²²⁾의 연구에서도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일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ugiura²³⁾의 연구에서도 외국어 실력에 자신감이 없으면 문화적 지식과 기술의 한계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국어 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것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문화적 역량이 증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학년, 임상실습경험, 해외여행경험유무 등에서는 문화적 역량에 있어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간호대학생에서 일반적인 문화적 역량보다는 문화간호역량으로 좀 더 특성화하여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 등,¹⁴⁾ Lee,¹⁵⁾ Oh 등¹⁸⁾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문화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가 공감능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신과 다른 인종, 문화적 특성에 대해 수용적일 때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 등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요소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인지적 공감능력이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 등¹⁴⁾과 Lee¹⁵⁾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능력보다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

학생의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과 문화적 역량의 하위 항목인 문화적 경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자가 문화적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난 Park²⁴⁾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Peek과 Park¹⁷⁾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사전·사후 점수와 Cooper-Brathwaite²⁵⁾의 연구에서 66명의 공중 보건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 교육 후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 중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상호행위 영역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지식과 문화적 상호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상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환자 간호에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문화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으로 문화적 역량이 25.9%를 차지하고 있었고,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 중 문화적 인식, 민감성, 경험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Peek과 Park¹⁷⁾의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때 공감능력의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으로 공감능력이 5.5%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 중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Cha와 Yang²¹⁾의 연구에서는 종교와 해외여행 횟수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설명력이 13.2%로 나타난 것과, Kim과 Kim²⁰⁾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1학년보다는 3학년,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외국어가 유창한 경우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18%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일반적 특성보다는 문화 관련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Lee 등¹⁹⁾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지적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학년, 3학년 139명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과 문화적 역량을 파악하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대상자 외국어 능력은 '5점 이상'인 대상자가 '5점 미만'인 대상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공감능력의 평균은 150점 만점에 106.0 ± 10.1 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의 평균은 135점 만점에 78.7 ± 12.3 점이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외국어 능력이 '5점 이상'일수록 문화적 역량 점수가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문화적 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문화적 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다섯째, 외국어 능력, 공감능력을 독립변수로 문화적 역량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였고, 문화적 역량의 하부영역을 독립변수로 공감능력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9%였다.

대상자의 학교에는 다문화 관련 교과과정이 특별히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에 따른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다문화 관련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E-country Indicators, Foreign residency statu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0 [updated 2015 July 9; cited 2015 July 20].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smart/chart_view.jsp?idx_cd=2756&m=1
2. Lee BW, Ko ZK. A study on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medical services(the health and medical care) for the foreign workers. *Hanyang Law Rev*. 2010;31(3):323-52.
3.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System, Number of foreign patients [Internet].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4 [updated 2014 February 10; cited 2015 July 20]. Available from: http://khiss.go.kr/khidi/themestat/sublistThemeSubjectstat.jsp?htxt_code=12599056317038554276471450314736&uplist_id=358_E&list_id=358_EC
4. Campinha-Bacote J.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 Transcult Nurs*. 2002;13(3):181-4
5. Min SH, Lee MY.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 Adolesc Welf*. 2009;11(1):183-206.
6. Oh WO.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11;17(4):222-9.
7. Yang SY, Lim HN, Lee JH.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3;19(2):183-9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8. Davis MH.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9. Jeon, B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dissertation].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2.
10. Park SH.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 1997.
11. Suh EE. The model of cultural competence through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 Transcult Nurs*. 2004;15(2):93-102. <http://dx.doi.org/10.1177/1043659603262488>
12. Han SY.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4.
13. Kim HJ, Yi MS.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2):237-45.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37>
14. Yang SY, Lim HN, Lee JH.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3;19(2):183-93.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15. Lee MR.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resilience and empathy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aya University Res*. 2011;19:281-93.
16. Chung MS.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2):332-40.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332>
17. Peek EH, Park CS.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013;43(5):690-6.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690>
18. Oh WO, Jung WS, Kang HG, Kim EH, Suk MH. Cultural knowledge, empathy and cultural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nd welfare. *J Korean Soc Sch Health*. 2010;23(2):192-9.
19. Lee NY, Eo YS, Lee JW.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CC) and educational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CCN)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1):16-27.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1.16>

20. Kim DH, Kim SE.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3;22(3):159-68.
<http://dx.doi.org/10.12934/jkpmhn.2013.22.3.159>
21. Cha YR, Yang SJ. Factor related to cultural competence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Korea. *Nurs Sci*. 2014;26(2):13-26.
22. Park DY, Jung KH.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 Contents Assoc*. 2014;14(11):337-46.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337>
23. Sugiura K. Survey-based analysis of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and its predictors: comparison between nurses who were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and nurses working at municipal hospitals. *Jpn J Nurs Sci*. 2003;23(3):22-36.
24. Park JS. Stud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 [dissertation].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1.
25. Cooper-Brathwaite A. Evaluation of a cultural competence course. *J Transcult Nurs*. 2005;16(4):361-9.
<http://dx.doi.org/10.1177/1043659605278941>